

림표반당집단의 사회적 기초에 대하여

요 문 원

외 국 문 출 판 사

1975년 · 베이징

모 주 석 어 록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상품제도 그리고 8급로임제처럼 불평등한 로임제도같은것들을 실시하고있다. 이런것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하에서 제한하는수밖에 없다. 그러니 립표파위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자본주의제도를 매우 쉽게 실시할수 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의 로작을 많이 읽어야 한다.

모주석께서는 부르조아지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문제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립표파위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자본주의제도를 매우 쉽게 실시할수 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의 로작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하시었다. 여기에서 《립표파위들》의 계급적본질은 무엇이며 립표반당집단이 생겨나게 된 사회적기초는 무엇인가 하는 극히 중요한 문제가 나서게 된다. 이런 문제를 명백히 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공고히 하고 자본주의복귀를 방지하는데 있어서와 사회주의력사단계에 있어서의 당의 기본로선을 철저히 집행하며 부르조아지가 존재할수도 없거니와 다시 생겨날수도 없는 조건을 점차 마련하는데 있어서 더 말할것없이 매우 필요한것이다.

모든 수정주의자나 수정주의사조와 마찬가지로 립표나 그의 수정주의로선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립표와 그 일당들은 전당, 전군과 전국인민들 속에서 극도로 고립되어있었다. 그러나 이런 극도로 고립된 《하늘을 날으며》《거침

없이 오가는 천마》와 같은 인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깊은 사회적 기초와 계급적 기초가 있는 것이다.

림표반당집단이 타도된 지주-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표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뒤엎고 부르조아독재를 복귀하려는 타도된 반동들의 념원을 대표하였다는 이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림표반당집단은 프로레타리아문화대혁명을 반대하였으며 우리 나라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이를 갈면서 《봉건적독재》라고 비방하고 《현시대의 진시황》이라고 중상하였다. 그자들은 지주분자, 부농분자, 반혁명분자, 나쁜분자, 우파분자들이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진정한 해방을 얻게》하려고 하였다. 다시말하면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지주-매판자본가계급독재로 개변시키며 사회주의제도를 자본주의제도로 개변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결사적으로 복귀를 피하는 부르조아지의 당내에서의 대리자들인 림표반당집단의 당과 프로레타리아독재에 대한 공격은 아주 발광적인 지경에 이르렀으며 나중에는 특무조직을 결성하고 반혁명 무장정변을 책동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런 발광성은 정권과 생산수단을 빼앗긴 반동들이 잃어버

린 저들의 착취계급의 진지를 도로 찾기 위하여서는 필연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림표가 정치적, 사상적으로 파탄되자 목숨을 내건 도박군처럼 프로레타리아트를 《집어삼키려고》 남은 밀천을 다 털어 걸었으며 나중에는 조국을 배반하고 적의 품에 안기려 하였음을 보았다. 그리고 모주석께서 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참을성있게 교양하고 시간을 주어 돌아서기를 기다렸으며 구해내려고 하였지만 그자의 반혁명적본질을 조금도 개변시킬수 없었음을 보았다. 이 모든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하에서 적대계급인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조아지사이에는 결사적인 투쟁이 벌어지며 이런 투쟁은 매우 오랜 기간 계속되리라는것을 말하여준다. 타도된 반동계급이 아직 존재하는 한 당내(나아가서는 사회)에는 복귀의 념원을 복귀의 행동으로 옮기려는 부르조아대표인물들이 나타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성을 높여 나라안팎의 반동들의 온갖 음모책동을 경계하고 그것을 분쇄하여야 하며 절대 마음의 탕개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사물의 전반을 다 인식하였다고 할수 없다. 림표반당집단은 타도된 지주-자본가계급의 복귀의 념원을 대표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사회주의사회에서 새로 생겨난 부르조아분자들의 정권탈취의 념원도 대표하고 있다. 그자들은 새로 생겨난 부르조아분자들의 일부 특성들을 갖추고있으며 그들가운데의 어떤 자들은 그자신이 바로 새로 생겨난 부르조아분자이다. 그자들이 웨쳐대는 어떤 구호는 부르조아들과 자본주의의 길로 나아가려는자들의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려는 요구에 순응한것이며 그 요구를 반영한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후자에 대하여 한걸음 더 깊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모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레닌은 <소생산은 끊임없이 날마다 시간마다 자연생장적으로 자본주의와 부르조아지를 대량적으로 낳고있다.>고 말하였다. 부분적로동계급과 부분적당원 가운데도 이런 형편이 존재한다. 프로레타리아가운데도 기관의 사업일군가운데도 부르조아적생활양식에 물젖는자들이 있다.》 립표반당집단가운데의 어떤 인물들은 이런 새로 생겨난 부르조아와 자본주의의 대표자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립표파(립표의 말아들—역자주)와 그의 소《합대》(그자들의 특무조직의 대호—역자주)는 완전히 사회주의사회에서 생겨난,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조아분자이며 반혁명분자이

다.

부르조아지가 끼치는 영향과 제국주의 및 수정주의가 끼치는 영향은 새로운 부르조아분자들이 생겨날수 있는 정치적 및 사상적 근원이다. 그리고 부르조아적권리의 존재는 새로운 부르조아분자들이 생겨날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토대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공산주의사회의 첫단계(보통 사회주의라고 불리우는)에서는 <부르조아적권리>가 완전히 폐지되는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이미 탈성한 경제적변혁의 정도에 따라서만, 즉 생산수단에 대해서만 폐지되는것이다.》 《그러나 <부르조아적권리>는 다른 부분에는 역시 남아있게 되며 사회성원들사이에 생산물을 분배하며 로동을 분배하는 조절자(규정자)로서 남아있게 된다.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 말라>라는 이 사회주의적원칙은 이미 실현되여있다. <평등한 량의 로동에는 평등한 량의 생산물을>이라는 이 사회주의적원칙도 이미 실현되여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공산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평등한 사람들에게 불평등한(사실상 불평등한) 량의 로동에 대하여 평등한 량의 생산물을 주는 <부르조아적

권리>를 아직 제거하지 못한다.》

모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중국은 사회주의나라에 속한다. 해방전에는 자본주의와 비슷하였다. 지금에도 8급로임제, 노동의 질과 량에 따르는 분배, 화폐에 의한 교환을 실시하고있는데 이런것들은 낡은 사회와 별로 차이가 없다. 다른것이라면 소유제가 변한 그것이다.》《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상품제도 그리고 8급로임제처럼 불평등한 로임제도같은것들을 실시하고있다. 이런것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하에서 제한하는수밖에 없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아직 두가지 사회주의 소유제 즉 전인민적소유제와 집단적소유제가 존재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지금 상품제도를 실시하지 않을수 없는 결정적요인이다. 레닌과 모주석께서 하신 분석에 의하면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분배와 교환에서 불가피하게 남아있게 되는 부르조아적권리에 대하여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하에서 이런것들을 제한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사회주의혁명행정에서 3대차이와 등급차이를 점차 줄이며 이러한 차이를 소멸하기 위한 물질적조건과 정신적조건을 점차 마련하여야 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대신 부르조아적권리 및 그에 의하여 초래되는 그런 부분적 불평등현상을 보존하고 확대하며 강화한다면 필연적으로 엄중한 계급분화현상이 생기게 될것이다. 이를테면 소수사람들이 분배면에서 일부 합법적인 수단이거나 여러가지 비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상품과 화폐를 차지하게 될것이며 이런 《물질적 자극》에 의하여 자극된 자본주의적 치부사상과 명리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어 나라와 집단의 소유물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거나 투기모리를 하거나 탐오와 부화를 일삼거나 도적질을 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상품교환원칙이 정치생활에, 나아가서는 당내생활에까지 침입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허물어버리며 상품과 화폐를 자본으로 전화시키고 로동력을 상품으로 삼는 자본주의적착취행위가 나타나게 될것이며 수정주의로선을 집행하는 일부 부문 또는 단위들에서 소유제의 성질이 개변되어 근로인민을 압박하고 착취하는 현상이 다시금 나타나게 될것이다. 그 결과 당원, 로동자, 부유한 농민, 국가기관사업일군들 가운데서도 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인민을 완전히 배반한 소수의 새로운 부르조

아분자와 버락부자가 생겨나게 될것이다. 노동자동무들이 《부르조아적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부르조아적권리가 사회주의의 발전을 제한하며 자본주의의 발전을 돕게 될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주 지당한 말이다. 경제적면에서의 부르조아지의 세력이 일정한 정도로 자라나게 되면 그의 대리자들은 정치적면에서의 지배권을 가지려 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와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 하며 사회주의적소유제를 전반적으로 개변시키고 공공연히 자본주의제도를 복귀하고 발전시키려 한다. 새로운 부르조아지가 일단 정권을 잡게 되면 무엇보다먼저 인민들에게 피비린 탄압을 가하는 동시에 모든 사상문화령역을 포함한 상부구조령역에서 자본주의를 복귀하며 뒤이어 자본의 많고적음과 권력의 크고작음에 따라 분배하게 되어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한다》는것은 허울밖에 남지 않게 되고 생산수단을 독점한 한줌도 못되는 새로운 부르조아분자들이 동시에 소비재와 기타 생산물에 대한 분배권을 독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쓰련에서 일어난 자본주의복귀의 과정이다.

림표반당집단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탐욕스

럽게 재부를 긁어모았으며 사치와 탐욕에 눈이 어두워 부르조아지의 생활양식만 추구하였으며 부르조아적권리를 리용하여 음험하고 추악한 부정적인 행위들을 저질러온데 대하여 사람들은 많은 사실들을 적발하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문제를 더욱 똑똑히 설명해주는것은 그들의 반혁명정변계획인 《〈571공사〉요강》이다. 이 반혁명정변계획에서 림표반당집단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반대하도록 여러 계급내부의 일부 사람들을 부추기고 꼬드기는데 리용한것은 바로 다름아닌 부르조아적권리의식이였다. 다시말하여 이 계획은 바로 낡은 부르조아뿐아니라 일부 새로운 부르조아분자와 그리고 부르조아적권리를 리용하여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려는 소수사람들의 계급적리익을 대표한것이다. 따라서 이 계획은 공격의 예봉을 모주석의 프로레타리아혁명로선에 돌리고있으며 또한 우리 나라의 프로레타리아독재하에서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부르조아적권리에 이터저터하게 제한을 가하고있는데 대하여 특별히 중오하고있다.

림표반당집단은 국가기관간부들이 5.7간부학교로 가는것을 《변태적실업》이라고 중상하였으며 기구를 간소화하고 대중과 접근하는것을

간부에 대한 타격이라고 공격하였다. 그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간부란 인민의 머리우에 올라앉은 나으리여야 하므로 간부들이 집단생산로동에 일단 참가하기만 하면 《실업》한것으로 되고마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기관사업일군들가운데서 부르조아적권리를 확대하며 벼슬자리를 얻어 나으리질을 하며 하는 부르조아적생활양식에 깊이 물든 일부 사람들을 꼬드겨 당의 로선과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게 하기 위한것이다.

림표반당집단은 지식인들이 노동자, 농민들과 결합하며 농촌으로 진출하는것을 《변태적인 로동개조와 같다》고 중상하였다. 공산주의적으로 각성된 생기발랄한 많은 청년들이 계속 농촌으로 진출하는것은 3대차이를 줄이며 부르조아적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 심원한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업이다. 혁명적인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있지만 부르조아사상에 물젖은 사람들 특히는 부르조아적권리의식에 얽매인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하고있다. 지식청년들을 노동자, 농민들과 결합시키는 방침을 견지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대학에서의 교육혁명을 통하여 학생들을 노동자, 농민들속에서 모집할뿐만아니라 노동자, 농민들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상해공장기계공장의 길을 견지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것이다. 림표반당집단이 이것을 특별히 중오한것은 그자들이 근로인민과 대립되어 있다는것을 보여줄뿐만아니라 또한 그자들이 부르조아적권리를 리용하여 당을 공격하며 부르조아적권리의식의 영향을 보다 깊이 받은 일부 사람들을 부추겨 사회주의혁명을 반대하게 하며 하였다는것을 폭로하고있다. 그자들의 강령은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차이를 확대하고 지식청년들을 새로운 귀족계층으로 만듦으로써 부르조아적권리의식의 영향을 보다 깊이 받은 일부 사람들로부터 저들의 반혁명정변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는것이였다.

림표반당집단은 로동계급이 공산주의정신을 발양하여 수정주의의 《물질적자극》을 비판하는것을 《변태적인 착취를 당하고있다》고 중상하였다. 림표는 《물질적자극》의 열광적인 고취자였다. 림표는 자기의 죄악적인 필기장에 《물질적자극은 필요한것이다》, 《유물론—물질적자극》, 《벼슬, 로임, 덕성으로 유인》 따위의 수정주의의 반동언론들을 써놓았다. 림표반당집단의 한 주요성원도 자기의 수첩에 《로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과 물질적 이익의 원칙》은 생산을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원동력》이라고 써놓았다. 그자들은 겉으로는 돈으로 노동자들을 《자극》할것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등급차이를 무한정으로 확대시켜 노동계급내부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배반하고 프로레타리아트의 이익을 배반한 소부분의 특권계층을 길러내고 이런자들을 매수함으로써 노동계급의 단결을 파괴하려 하였다. 그자들은 부르조아세계관으로 노동자들을 부식하며 또 노동계급내부에선 부르조아적권리의식의 영향을 보다 깊이 받은 소수사람들을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반대하는 세력의 지지세력으로 삼으려 하였다. 립표일당은 《로임》으로 《청년노동자》들을 유인하는데 《특별한》주의를 돌렸다. 이른바 《벼슬, 로임, 덕성으로 유인》이라는것은 그자들의 음모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반면으로부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것을 알려주고있다. 청년노동자들 특히는 지도일군으로 된 청년노동자들은 부르조아지의 물질적유인과 부르조아적권리의식으로부터 오는 온갖 치살림을 자각적으로 물리치고 프로레타리아트와 전인류의 종국적인 해방을 위해 영웅적으로 투쟁하는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받

양하며 맑스-레닌주의세계관으로 자기를 무장하기에 힘써야 하지 절대 상품이나 화폐에 의한 교환, 저속한 치살림이나 아침, 그리고 종파주의와 같은 따위의 황홀한 잡동사니에 도취되어 립표따위 정치사기꾼이나 사회의 지주-부르조아분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자들은 《관심》이라는 미명밑에 실제로는 청년노동자들을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도록 《자극》하고있으므로 정치적《교사범》이라고 할수 있다. 사회적경험이 부족한 새로 생겨난 부르조아분자들이 앞에 나서서 법을 위반하고 규률을 문란하게 하며 구미여우같은 오랜 부르조아분자들이 뒤에 숨어서 나쁜짓을 시키는것은 오늘 현실의 사회계급투쟁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현상이다. 우리는 나쁜 길에 잘못 들어선 청소년범죄자들을 처리할 때에 뒤에 숨어서 나쁜짓을 시키는 교사범들을 중점적으로 타격하고있는데 이 방침은 계속 견지하여야 한다. 현실적인 투쟁가운데서 부르조아지의 부식에 맞서 아주 굳세게 싸우고있는 청년노동자들이 많이 나타나고있다. 우리는 그들을 지지하며 그들의 투쟁경험을 잘 총화하여야 한다.

립표반당집단은 또 농민들은 《먹고입을것이

부족하다》느니, 해방군지회원들의 《생활수준이 낮아졌다》느니, 홍위병들이 문화대혁명가운데서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견해를 말하고 대담하게 행동하고 대담하게 실현하고 대담하게 혁명하는 정신으로 부르조아지를 비판한것은 《리용당한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중상하였다. ...이 모든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제도와 당의 군중로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부르조아지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를 부정하며 부르조아적권리를 확대하고 자본주의를 복귀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그자들이 농민들은 《먹고입을것이 부족하다》고 중상한 목적은 《모조리 먹어버리고 모조리 나누어가지도록》 농민들을 부추김으로써 사회주의적 집단경리를 와해시키고 해소시키려는데 있었다. 만일 이러한 로선에 따라 일을 해나간다면 소수사람들이 새로운 부르조아로 되고 압도적다수사람들이 자본주의의 착취를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지주, 부농이나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려는 농촌의 일부 부유층농들이 바라고있는 사태인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립표가 떠벌인 이른바 《진정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것이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알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의 간판

을 내걸고 부르조아적권리를 확대하여 새로운 부르조아분자 그리고 자본주의길로 나아가려는 일부 파벌과 집단들이 이미 타도된 지주-자본가 계급과 야합하여가지고 《모든것을 지휘하고 모든것을 동원》하면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뒤엎고 자본주의를 복귀하려는것이다. 립표파위들은 바로 그런자들의 정치적대표자이다. 립표반당집단이 《〈571공사〉요강》에서 들고나온 이런 강령은 하늘에서 떨어진것도 아니거니와 《초인간적인 천재》로 자칭하는 그자들의 머리속에 처음부터 있던것도 아니며 그것은 사회적존재의 반영인것이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자들은 저들의 부르조아지의 반동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인구의 몇프로밖에 안되는 개조되지 않은 지주분자, 부농분자, 반혁명분자, 나쁜분자, 우파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소수의 새로운 부르조아분자와 그리고 부르조아적권리를 리용하여 새로운 부르조아분자로 되려는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한것이며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나아가려는 인구의 90%이상을 차지하는 혁명적인 민들의 요구를 반대한것이다. 그자들은 판념론적선천론으로 유물론적반영론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자신의 반혁명적사상의 형성과정은 어

더까지나 유물론적 반영론에 의하여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때문에 립표따위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자본주의제도를 매우 쉽게 실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 아직 계급과 계급투쟁이 존재하며 자본주의가 생겨날 수 있는 토양과 조건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양과 조건을 점차 줄이며 나아가 그것을 종국적으로 소멸하려면 프로레타리아독재하에서의 계속혁명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모주석의 혁명로선에 의하여 지도되는 프로레타리아전위대가 몇세대에 걸쳐는 꾸준하고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야만 완수할 수 있는 과업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의 기본로선을 견지하며 노동계급의 정치적각성을 높이며 노동동맹을 강화하며 단결할 수 있는 모든 력량을 단결시킴과 동시에 광범한 혁명적대중을 단합시키고 인도하여 계급적원썹들과 투쟁하고 3대혁명운동을 벌려나가는 실천가운데서 자신의 세계관을 자각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의 천인민적소유제와 근로대중의 집단적소유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소유제면에서 폐지된 부르조아적권리가 되살아나는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소유

제의 개조면에서 아직 완수하지 못한 부분의 과업을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 점차로 완수하여야 하며 생산관계에서의 다른 두 측면, 즉 사람과 사람과의 호상관계 및 분배관계면에서 부르조아적권리를 제한하고 부르조아적권리의식을 비판하여 자본주의가 생겨날 수 있는 사회적기초를 부단히 약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부구조령역에서의 혁명을 끝까지 진행하면서 수정주의를 더욱 철저히 비판하고 부르조아지를 비판하며 부르조아지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전면적인 독재를 실시해야 한다.

모주석께서는 1971년 8월부터 9월에 걸쳐 여러 지방을 시찰하실 때의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국제가를 50년동안이나 불러왔지만 우리 당내에는 열차례나 분열을 꾀하는자들이 나타났다. 나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열차례, 스무차례, 서른차례도 더 나타나리라고 본다. 동무들은 그렇게 보는가? 동무들은 다르게 보는지 모르나 나는 어쨌든 그렇게 본다. 공산주의사회에 가면 투쟁이 없어진단말인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공산주의사회에 가셔도 투쟁은 존재하게 될것이다. 다만 그것이 새것과 낡은것, 옳바른것과 그릇된것 사이의 투쟁일 따름

이다. 몇만년후에 가서도 오유풀수 없으며 성립될수 없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가 지주들과 부르조아지를 정복한 그것으로써 사회주의의 길을 열어놓았으나 아직 사회주의의 건물은 세우지 못하였다. 그리고 낡은 한세대를 일소한 이 토양우에는 앞으로도 부단히 새세대가 나타나게 될것이다. 왜냐 하면 이 토양우에서는 전에도 많은 자산자들이 생겨났으며 또 지금도 생겨나고있기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본가들에 대한 승리를 소소유자들이 간주하는것처럼 간주하면서 <전에는 자본가들이 한몫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도 한몫 보자>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 새로운 세대의 부르조아의 원천인것이다.》 여기에서 레닌은 사회의 계급투쟁의 장기성에 대하여 말하였으며 모주석께서는 이러한 투쟁이 당내에 반영되어 이루어진 두 로선사이의 투쟁의 장기성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계급투쟁과 로선투쟁을 통하여, 수정주의를 실시하고 분열을 조작하며 음모책동을 꾸미는 부르조아지 및 그 대표자들의 준동을 끊임없이 이겨내야 한다. 그래야만 부르조아지가 존재할수도 없거니와 다시 생겨날수도 없는 조

건을 점차 마련하고 종국적으로 계급을 소멸할 수 있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전력사적시대에 완수하여야 할 위업인것이다.

부르조아사상의 부식과 부르조아적권리의 존재로 하여 생겨나는 새로운 부르조아분자들은 보통 향면주의와 벼락부자의 정치적특성을 가지고있다. 그자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하에서 자본주의적활동을 하기때문에 언제나 이러저러한 사회주의의 간판을 들고나오기 마련이다. 그자들의 복귀활동은 잃어버린 생산수단을 도로 찾는것이 아니라 저들이 아직 소유해본적이 없는 생산수단을 탈취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류달리 탐욕스러워 그 재부가 전인민적소유이건 집단적소유이건 단꺼번에 삼키여 사적소유로 만들려고 서둔다. 립표반당집단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특성을 가지고있다. 《중산의 늑대같은 사나이, 뜻을 이루면 더욱 열에 떠 날치리》, 이것은 《약삭바르고 열레발을 잘 치면서도》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게 노는 손소조를 묘사한 《홍루몽》가운데의 시구이다. 이것을 그대로 옮겨다 립표반당집단에 대한 묘사에 쓴다면 아주 적절할것이다. 립표는 《뜻을 이루기》전에는, 즉 부분적 정

친권리와 경제권리를 틀어쥐기까지에는 반혁명적량면주의수단으로 당과 인민대중을 속이고 군중운동의 힘을 자기의 목적에 이용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혁명적간판을 내걸기도 하고 혁명적구호를 웨치기도 하였으며 동시에 또 그것을 외곡하기도 하였다. 모주석께서는 문화대혁명초기에 쓰신 한통의 편지에서 름표일당의 정신세계를 분석하시면서 《그들의 본의는 귀신을 치기 위해서 종규의 힘을 빌어쓰는 것이라고 나는 짐작한다.》(종규란 잡귀신을 잡는다는 전설에 나오는 신—역자주)라고 지적하시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이런 현상을 아주 적절하게 설명하고있다. 그자들이 《종규의 힘》을 《빌어쏘》것은 바로 문을 열기 위한 열쇠로 삼은 데 불과하다. 그러나 일단 저들의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이 《종규의 힘》을 더는 《빌어쏘》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뿐만아니라 도리어 그 《종규》를 잔인무도하게 없애버리려 하였던것이다. 반혁명적량면주의라든가 불은기를 추켜들고 불은기를 반대한다든가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하고 뒤에서는 해치며 든다》든가 또 름표반당집단이 자백한것처럼 《모주석의 기발을 들고 모주석의 력량을 타격한다》든가 하는것은 죄다 말은 다르지만 하

는 수작은 다 같은것이다. 름표반당집단은 자신들이 스스로 묘사한것처럼 《몇해동안의 준비를 거쳐 사상적, 조직적, 군사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랐고 사상적, 물질적으로 일정한 기초가 잡혔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자들은 열에 떠날치기 시작하였다. 그자들은 저들이 손에 넣고 통제하고있는 단위나 부문에서 사회주의의 국민적소유제를 름표반당집단의 사적소유제로 개변시키고 저들의 정치적야망을 갈수록 더욱 폭력적으로 드러내놓았다. 그자들의 이런 야심은 그자들이 《뜻을 이루는》 정도에 따라 커만 갔다. 그것은 자본의 축적이 늘어남에 따라 부르조아지의 탐욕이 더욱 커가는것처럼 끝이 없었다. 필스는 부르조아지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자본으로서의 그는 인격화된 자본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령혼은 곧 자본의 령혼이다.》라고 말하였다. 당내에서의 부르조아지의 대리자인 름표의 령혼도 역시 이미 꺼꾸러졌으나 아직 복귀를 꿈꾸고있는 오랜 부르조아지와 바야흐로 생겨나고있으며 통치권을 쥐려고 망상하고있는 새로운 부르조아지의 령혼에 지나지 않는다. 계급적으로 분석해볼 때 력사발전의 흐름을 거슬러 행동하던 름표일당의 반혁명적정치활동의 근원은 아주 명

백한것이다. 그자들이 공자와 맹자의 교리를 고취하며 당과 중국인민을 배반하고 사회제국주의의 몰속에 기여는것은 공자를 숭상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중국배판부르조아지들이 해온 짓과 같은것이다. 그자들이 미친듯이 열에 떠서 반혁명정변을 일으키려 한것도 세계의 많은 나라 부르조아지들이 수없이 써왔으며 또 지금도 계속 쓰고있는 수단을 되풀이한데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임무는 부르조아지와 자본주의가 생겨나는 토양을 점차 줄여가는 한편 립포따위의 새로운 부르조아지가 생겨났거나 생겨나고있을 때 그자들을 제때에 가려볼줄 알도록 하는것이다. 맑스주의, 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을 학습하는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맑스주의의 지도를 떠나서는 상술한 두가지 임무를 완수할수 없을뿐아니라 수정주의적사조가 나타났을 때에도 자기에게 부르조아적권리의식이 존재하거나 또는 그것을 똑똑히 가려볼줄 모르는데서 속아 넘어가거나 지어는 무슨 감투끈인지도 모르고 도적배에 오르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때문에 수정주의로선이 나타났을 때 그 로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수 있었겠는가? 무엇때문에 당 제9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립포일당들이 관념론

을 들고나와 벽적 고아대며 사람들을 속일수 있었겠는가? 무엇때문에 당을 분열시키고 프로테리아독재를 뒤엎기 위하여 퍼뜨린 립포반당집단의 로골적인 언론들이 소수간부들가운데서 시장을 얻을수 있었겠는가? 무엇때문에 크고작은 《합대》들이 공공연히 한턱 차려먹이거나 폐물을 주거나 베풀자리를 척척 떼여말기는 방법을 세력을 확대하고 종파활동을 하고 음모책동을 꾸미는 수단으로 삼을수 있었겠는가? 무엇때문에 그자들이 저들의 죄악적인 필기장에 써놓은것처럼 《기술로 정치를 덮어감추는》것을 반혁명활동의 책략으로 삼을수 있었겠는가? 여기에 바로 뼈저린 교훈이 있는것이다. 모주석께서는 1959년에 팽덕회반당집단을 반대할 때 《오늘 주되는 위험은 경험주의이다.》라고 지적하시면서 맑스주의로작을 진지하게 읽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 10여년동안 모주석께서는 이 의견을 여러번 거듭 말씀하시였다. 모주석께서는 당내의 고위급간부와 중급간부들, 누구보다도먼저 중앙위원들은 《부동한 처지에 따라 진지하게 책을 읽고 학습하며 맑스주의를 잘 깨쳐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으며 또한 《최근 몇년동안에는 맑스주의와 레닌주의를 선전하는데 특별히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강

조하시였다. 립표반당집단이 분쇄된 뒤에 모주석께서는 또 《나는 동무들에게 책을 좀 읽을것을 정식으로 권고한다.》고 거듭 말씀하시였고 최근에 프로테타리아독재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이 점을 또다시 강조하시였다. 수령님의 이런 친절하고도 간곡한 교시들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깊은 감명을 안겨주는것인가! 전당동지들, 특히는 고위급간부들은 이 일을 프로테타리아독재의 강화와 관련되는 국가대사로 삼고 잘 틀어쥐어야 한다. 그리하여 프로테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과 모주석의 론술 및 주요저작들을 무엇보다도먼저 자신이 잘 학습하고 똑똑히 알아야 하며 이론과 실천을 결합시켜 문제를 설명하기에 힘쓰는 한편 사상적으로나 행동면에서 대중을 리탈하는 부르조아사상작풍을 일소하고 대중과 한덩어리로 되기에 힘써으로써 사회주의적신생사물의 성장발전을 촉진하고 자본주의의 부식을 능란하게 가려 보면서 그것을 용감하게 물리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몇십년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우리 당의 간고분투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발양하고 계승해야 한다. 실정을 잘 로해하고 경제정책을 포함한 제반 정책들을 연구하여야 한다. 혁명을 틀어쥐

고 생산을 다그치며 사업을 다그치며 전쟁준비를 다그치는 방침은 실제적으로 효과를 올리고 있으므로 금후 계속 견지하여야 한다. 성격이 서로 다른 두가지 모순을 구분하는데 주의를 돌려 극소수의 나쁜분자들을 정확하고도 무자비하게 죽이는 한편 대중속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적영향에 대해서는 《단결—비판—단결》의 공식에 따라 주로는 학습을 통하여 의식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본주의적인것을 전격히 물리치는 선진적인 사물을 지지하는 방법으로, 지난날을 회억하며 오늘과 대비해보는 방법으로, 설복교양 및 비판과 자기비판의 방법으로 해결함으로써 간부와 대중의 95%를 단결시켜야 한다. 자본주의적경향을 비판함에 있어서는 사회여론을 일으키고 다수를 쟁취하고 자각성을 높이도록 깨우쳐주며 적극적으로 인도해주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수령속에 깊이 빠져들어간 개별적사람들에 대해서는 《동무! 어서 돌아서시오!》하고 경고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글의 서두에서 립표반당집단은 전국인민들속에서 극도로 고립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립표반당집단이 생겨나게 된 계급적근원을 분석하면서 립표반당집단이 생겨날수 있는 토양과 조건들을 밝혔다. 이 점에 뒤이어

우리는 또 립포반당집단이 본질적으로 매우 허약하며 모든 반동들과 마찬가지로 종이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해야 하겠다. 립포반당집단의 온갖 반혁명활동은 승리의 기록인것이 아니라 궁지에서 허덕이던 실패의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주의제도는 반드시 자본주의제도를 대체하고야말것이며 공산주의는 반드시 세계적으로 승리하고야말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 객관적법칙이다. 사회주의사회는 낡은 사회에서 배태되어나온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즉 경제, 도덕 및 정신적 면에서 그것을 낡은 낡은 사회의 흔적을 그냥 가지고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난 25년동안의 역사는 우리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견지하며 프로레타리아독재하에서의 계속혁명에 관한 모주석의 학설을 견지하며 모주석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여주신 사회주의혁명의 로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기만 한다면 계급적원썹들의 반항을 분쇄하고 이러한 흔적들을 하나하나 없애버리면서 부단히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알려주고있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은 날로 융성발전하는 아주 좋은 정세에 처하여있으며 그것은 내부가 사분오열

되고 안팎으로 궁지에 빠진 제국주의, 사회제국주의의 처지와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있다. 이번에 모주석께서 제기하신 리론문제는 리론과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역사적임무와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방법들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혁명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발전시키며 전국적범위에서의 안정과 단결을 촉진하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승리의 신심으로 충만된 중국의 공산주의자들, 중국의 프로레타리아트와 혁명적인민들은 지금 당의 령도밑에 철석같이 뭉쳐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방지하는 투쟁에 기운차게 뛰여들고있다. 중국혁명의 역사는 혁명적인민들이 굴곡적인 투쟁을 거쳐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간 역사였으며 또한 반동들이 우리와의 거듭되는 대결을 거쳐 멸망에서 멸망으로 나아간 역사였다. 그것은 바로 모주석께서 총화하신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1911년에 황제가 깨꾸러진 뒤 반동들이 정권을 오래 잡고있은적이라곤 없다. 가장 길어서 20년동안이었는데(장개석) 인민이 들고일어나자 그도 역시 깨꾸러지고말았다. 장개석은

자기에 대한 손중산의 신임을 리용하고 또 황포 군관학교를 세워 반동들을 수많이 굶어모았다. 그는 이렇게 하여 권력을 잡았던것이다. 그가 공산당을 반대하자 거의 모든 지주-자본가계급들이 그를 옹호하여나섰다. 그당시 공산당은 아직 경험이 없었으므로 그는 으쓱해서 일시적으로 세력을 얻었다. 하지만 그는 이 20년동안에 끝내 나라를 통일해보지 못하고말았다. 국공랑당사이의 전쟁, 국민당과 여러 군벌들사이의 전쟁, 중일전쟁 그리고 나중에는 4년동안의 큰 내전을 거쳐 마침내 섬으로 도망치고말았다. 중국에서 만약 반공적인 우파들의 정변이 일어난다면 그들은 결코 편안할수 없을것이며 그들의 수명은 길지 못할것이라고 나는 단언할수 있다. 왜냐 하면 90%이상의 인민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모든 혁명가들이 그것을 옹납하지 않을것이기때문이다.》《늘 하는 말이지만 전도는 광명하고 전진도상에는 굴곡이 있다는 이것이 바로 결론이다.》 우리는 다같이 모주석께서 가리키시는 방향과 한길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자!